

【이온 몰 오카야마 오픈】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2월 5일, 오카야마 역 앞에 이온 몰 오카야마가 드디어 오픈.
356 전문점 (중 현지 기업이 65 점포)이 하룻밤 사이에 탄생했습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 (6일)에 아내와 함께 가서 천천히 돌아보았습시다만,
매력있는 점포들에 두 사람 모두 흥분의 연속.

아마도 오카야마 시민여러분도 이 설렘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쇼핑몰 안에는 지역 민간방송국 (오카야마 방송 - OH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이 상업 시설 안에 방송 제작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방송국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는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젊은이 (학생 및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열기가 넘쳤습니다. 과연 새것에 민감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카야마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가 있었나 싶어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 월 29 일 소프트 오픈부터 10 여일 지났지만 오카자키 사장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내점객 수는 예상을 약간 웃돌고 있어 출발이 순조롭다고. 이대로라면 연간 내점객이 2,000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시 외, 현 외로부터 오카야마를 방문하실 분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면 전철이나 버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클 '모모 차리 "(1 회 100 엔 / 회수권이라면 60 엔)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으므로 내점하시는 분들은 꼭 쇼핑과 함께 오카야마를 둘러보시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인근 상점가 등은 많은 적든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노력해 주셔서, 그 상승효과로 오카야마 전체의 고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저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픈 전의 대규모 교통 체증의 발생을 우려되고 있었습시다만, 지금까지는 심각한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습시다.

이것은 많은 분이 JR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는 덕분이며, 경찰이 시청 부근의 일부 교차로의 우회전 금지 등의 교통 규제를 시행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